

현물지표별계획수행평가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장 현 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물지표별계획수행평가의 합리적방법을 잘 연구하면 현실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6권 66페이지)

현물지표별계획수행평가방법을 더욱 개선하는것은 계획수행정형을 옳바로 평가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계획화가 필수적으로 제기되며 생산계획이 총량적으로뿐 아니라 품종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에서 세부계획에 맞물려진 지표별계획을 현물적으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할수 있다.

생산계획의 현물지표별수행정도를 분석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현물지표별생산계획수행률지표를 계산한다.

개별제품의 현물생산계획수행률은 직접 해당 제품의 계획생산량과 실적생산량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품생산을 다 포괄하는 기업소적인 현물지표별생산계획수행률은 개별적제품들의 계획수행률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계획수행정형을 옳바로 평가하여야 계획수행과정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될수 있고 계획된 생산물들을 다같이 지표별로, 질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된다.

현물지표별계획수행평가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지표별현물실적을 질을 고려하여 계산하는것이다.

지표별현물실적을 질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현물의 변동이 수량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제품의 질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수량적인 크기만을 현물실적에 포함시킨것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현물지표별평가의 본질적특징은 기업소들의 생산계획수행정형을 금액적으로가 아니라 현물로 평가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다방면적인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각이한 쓸모를 가진 생산수단들과 소비품들을 필요한량만큼 생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수요를 유일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생산보장하도록 세부적인 현물지표별생산계획을 세울것을 요구한다.

기업소의 현물지표별생산계획은 전사회적범위에서 인적 및 물적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경제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생산수단들과 소비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기업소들에서 현물지표별생산계획을 질적 또는 량적으로 수행하는데 투하하는 로동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유용한 로동으로 보아야 한다.

지표별현물실적을 바로 계산하자면 현물적인 크기를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다 포함시

켜야 한다. 생산의 현물적장성은 품종이 같은 물건이 지난 시기보다 질이 개선되어 생산되거나 혹은 지난 시기보다 수량적으로 더 많이 생산될 때 이루어진다. 이것은 현물적인 크기를 변화시키는 요소를 수량적인 크기와 질의 크기로 구분할수 있게 한다.

실례로 계획시기에는 기관차바퀴의 수명이 1년이었고 실적시기에는 그 수명이 2년으로 늘어났다면 그것은 질이 개선되어 변화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실적시기에 수량적으로 기관차바퀴 1개를 생산한것은 질의 변화를 고려하면 계획시기에 비하여 2개를 생산한것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계획시기조건에서 보면 2년동안에 2개의 기관차바퀴를 소비하여야 하지만 실적시기의 조건으로 보면 1개만 소비하면 되기때문이다.

이것은 질의 크기가 달라진것만큼 수량적으로는 변화가 없어도 현물실적이 더 늘어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현물실적을 바로 규정하자면 수량적인 변화와 함께 질의 변화도 그의 구성요소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지 소비령역에서 현물적인 크기가 늘어난것으로 나타나기때문에 그의 크기를 생산령역에 반영하지 않으면 생산과 소비사이에도 모순이 있게 된다.

생산물의 질을 더욱 높일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 질높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고 하여도 지표별현물실적을 규정하는데서 질의 크기가 달라진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수행평가에서 이러한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산자들이 같은 생산물의 생산에서 수량을 늘이는데만 치우치고 질을 높이는데는 관심을 돌리지 않게 된다.

이것은 수량적인 크기와 함께 질의 크기를 지표별현물실적에 포함시키는것이 생산물의 현물적인 크기를 정확히 규정하는데서뿐만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계획수행평가를 바로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생산물의 질의 크기를 현물실적에 포함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질의 변동과 수량적인 크기를 어떻게 결합하여 량적크기로 표현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는 수량적인 변화의 크기와 질의 변화크기를 다같이 독자적으로 반영할수 없는것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실례로 10컬레의 운동화생산을 계획하였는데 실적시기에는 수량적으로 8컬레를 생산하고 질이 1.2배로 높아졌다면 $9.6(8 \times 1.2)$ 컬레를 생산한것으로 된다. 이 경우 두가지 변동을 다 반영하여 실적시기에 $17.6(8+9.6)$ 컬레를 생산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변동을 결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결합비례를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결합비례설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조건은 소비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질의 개선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지만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산물의 소비과정은 한편으로는 소비대상수에 맞게 수량적으로 보장되어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대상의 질적인 요구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으로 이루어진다.

실례로 수량적으로 5컬레인 천신발의 수명이 2배로 늘어나 질을 고려하여 10컬레의 천신발이 생산된것으로 본다는것은 소비자 10명이 동시에 소비할수는 없지만 소비자 5명의 수요를 종전에 비해 2배로 충족시켜줄수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수량적인 변화가 질의 변화를 대신할수 없고 질의 변화가 수량적인 변화를 대신할수 없다. 이것은 수량적인 변동과 질의 개선이 다같이 중요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두가지 변동의 결합에서는

같은 비례관계를 설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현물지표별계획수행평가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는 다음으로 현물지표별계획수행평균률과 최종적인 계획수행률을 계산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바로 처리하는것이다.

현물지표별계획수행평가방법은 최종적으로는 보고시기의 실적으로 인정되는 현물량을 규정하고 그것을 계획된 현물량과 비교하여 계획수행률을 계산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계획수행률을 계산하자면 인정되는 현물실적을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계획수행률을 계산하는데서 생산된 현물을 전부 실적으로 하지 않고 인정되는 현물만을 실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은 모든 현물지표들을 다같이 중요한 지표로 하여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일부 지표들의 생산에 치중하는 현상을 없애고 계획과제를 고르롭게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생산물들이 서로 다른 쓸모를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한 쓸모가 다른 쓸모를 대신할수 없다는것을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계획지표의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실지 현물생산계획을 수행한것으로 된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인정되는 현물실적을 규정하자면 현물지표별계획수행평균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현물지표별계획수행평균률의 계산에서는 한 지표의 초과생산으로 다른 지표의 계획미달량을 메꾸어나가는 방법이 허용될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한 생산물이라도 계획을 못하면 현물지표별계획을 못한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개별적인 현물지표들의 계획수행률은 100%의 한계안에서 설정하여 현물지표별계획수행평균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100%의 한계안에서 설정되는 개별적인 현물지표들의 계획수행률을 계산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종전과 달리 수량적인 변화와 질의 변화를 다같이 반영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수량적인 변화와 질의 변화를 다같이 반영하는 경우에 이것은 실적시기만이 아니라 계획시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산에서 실적시기와 계획시기의 대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질의 변화를 반영하는데서 대비성을 보장하자면 실적시기에는 그의 실적을 고려하고 계획시기에는 그의 계획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실례로 어떤 생산물의 계획과제가 수량적으로 100개이고 질은 종전의 1.1배로 계획하였다면 현물계획은 $110(100 \times 1.1)$ 개로 된다. 그런데 실적시기에 수량적으로 95개를 생산하고 질이 1.2배로 장성하였다면 현물실적은 $114(95 \times 1.2)$ 개로 된다. 때문에 이 생산물의 계획수행률은 103.6%로 된다.

종전에는 수량적인 관계만을 고려하면 계획을 95%로 수행한것으로 되었지만 질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계획을 초과수행한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질의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이 생산물의 질을 개선하면서 현물계획을 수행할수 있게 하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게 한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생산물들의 계획수행률을 계산한 다음 그의 100%의 범위내의 계획수행률들을 평균하여 지표별계획수행평균률을 계산한다. 이것이 100%일 때 초과한 생산물들을 실적으로 인정하여 최종적인 계획수행률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최종적인 계획수행률을 계산할 때에도 인정되는 현물실적에는 수량적인 크기와 함께 질의 변화를 고려하여 계산한것을 넣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관리실천에서 나서는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해결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